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APEC 2025 KOREA

보도시점 2025. 9. 3.(수) 06:00 < 9.3.(수) 석간 > 배포 2025. 9. 2.(화)

중남미와 통상 네트워크 확대 및 공급망 협력 강화방안 논의

- 통상교섭본부장, 18개국 주한중남미대사들과 간담회 개최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김정관)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9.3(수) 서울에서 멕시코·브라질·아르헨티나·칠레·페루 등 중남미 18개국 대사들로 구성된 주한중남미대사단(단장 마티아스 프랑케 주한칠레대사)과 간담회를 갖고,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, 한-중남미 간 경제·통상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동 간담회에서 여 본부장은 지정학적 패권경쟁 심화,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전세계는 다자무역체제 약화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며, 이에 대응하여 한-중남미 간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. 중남미는 인구 약 6.9억명, GDP 약 7조불에 이르는 거대시장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, 교역을 다변화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글로벌사우스의 핵심 지역이다. 현재 우리나라는 중남미대사단 18개국 중 칠레·페루·콜롬비아 등 7개국과 FTA가 발효 중이며, 전날(9.2) 전략적경제협력협정(SECA)가 정식서명된 에콰도르, 지난해('24.1) 한-중미 FTA 가입에 정식서명한 과테말라 등 2개국과는 향후 국회 비준동의 등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.

한편, 여 본부장은 중남미는 리튬·니켈·구리·흑연 등 전세계 핵심광물의 보고(寶庫)라고 평가하고, 한국은 전기차·배터리·반도체 등 첨단 제조기술에 강점을 갖추고 있는 만큼, 양 지역 간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.

* (칠레) 구리 1위, 리튬 2위, (아르헨티나) 리튬 4위, (브라질) 흑연 4위, 리튬 5위(생산량 기준)

아울러, 여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AI 협력,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의미있는 협력 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CEO Summit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인 간의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히고, 중남미 국가들도 APEC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 중남미대양주통상팀	책임자	팀 장	안응수 (044-203-5630)
		담당자	사 무 관	조석인 (044-203-5634)
			주 무 관	이정민 (044-203-563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APEC 2025 KOREA 10.27.~11.1. 경주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주한중남미대사단 간담회 개요**

□ 행사 개요

ㅇ **(일시/장소)** ‘25.9.3(수), 12:00~14:00 / 포시즌스 호텔 누리볼룸

ㅇ **(참석)** 韓 통상교섭본부장, 중남미팀장, FTA이행과장, 인태팀장

중남미 주한중남미대사단* (총 18개국, 사절단장: 주한칠레대사)

* GRULAC(**Gr**o**u**p of **L**atin **A**meica and **C**aribbean Countries) : 멕시코, 브라질, 아르헨, 칠레, 페루 등 한국 내 상주공관을 둔 중남미 대사들로 구성된 모임

* 단장은 관례상 한국 부임이 가장 오래된 대사가 수임

ㅇ **(목적)**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한-중남미 협력방안 논의

□ 세부 일정(안)

※ 영어로 진행

시 간	주 요 내 용	비 고
12:00 - 12:05 (05’)	· 사진 촬영	주요 참석자
12:05 – 12:08 (03’)	· 모두발언	통상교섭본부장
12:08 - 12:11 (03’)	· 모두발언	주한칠레대사
12:11 – 14:00 (109’)	· 오찬 및 네트워킹 (참석자 자유발언)	참석자 전원

* 행사는 모두발언까지 공개